

‘삼진 머신’ 미란다, ‘레전드’ 최동원 넘어섰다

미란다, 지난 24일 LG전서 시즌 224번째 탈삼진
1984년 고(故) 최동원 223탈삼진 넘어 역대 최다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 아리엘 미란다(32)가 KBO리그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작성했다.

미란다는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울 KBO리그' LG 트윈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 팀이 2-0으로 앞선 3회초 1사 후 홈창기를 삼진으로 잡아냈다.

1루를 채운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미란다는 모자를 벗어 화답한 뒤 허리숙여 인사했다.

미란다는 시즌 224번째 탈삼진이자 역대 KBO리그 한 시즌 최다 삼진 기록 신기록이 나온 순간이다.

중전 기록은 1984년 고(故) 최동원이 작성한 223탈삼진이다. 최동원은 1984년 구덕 삼성 라이온즈전에 구원 등판해 시즌 223번째 탈삼진을 신고했다. 그해 최동원은 51경기(284%이닝)에 출전해 27승 13패 6세이브에 평균자책점 2.40의 성적을 올렸다.

미란다는 37년1개월1일만에 고(故)

최동원의 기록을 넘어 KBO리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221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미란다는 1회 2사 1루에서 상대 4번 타자 채은성을 빠른 볼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2회 1사 1루에서는 이영빈을 삼진으로 속아냈고, 이번에도 강속구로 헛스윙을 이끌었다. 시즌 223번째 탈삼진.

KBO리그 역대 최다 탈삼진 타이틀을 작성한 미란다는 삼진 퍼레이드는 계속됐다.

3회 홈창기에게 1볼-2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30km짜리 포크볼을 뿌려 헛스윙을 유도했다.

전광판에는 미란다는 사진과 함께 KBO리그 역대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떴다.

미란다는 올해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유력한 최우수선수(MVP) 후보다.

23일까지 14승 5패 평균자책점

2.29의 성적을 냈다. 후반기에 승운이 없어서 다승 1위에서 멀어져 '트리플 크라운'이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시즌 내내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했다.

삼진 부문 2위 한화 이글스 라이언 카펜터(175탈삼진)와 격차를 더 벌려 탈삼진 1위를 사실상 확정했다. 평균자책점 1위도 지키고 있다.

미란다는 올 시즌 9이닝당 탈삼진은 11.7개로 역대 한 시즌 200탈삼진 이상을 기록한 투수 중 가장 많다.

2001년 페르난도 에르난데스(SK 와이번스)가 갖고 있던 외국인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215개)은 일찌감치 갈아치웠다.

미란다는 한경기 최다 탈삼진은 지난달 25일 한화전에서 수확한 13개다.

올 시즌 한 경기에서 두자리수 탈삼진을 잡아낸 것은 총 8명으로 이 부문 공동 1위다. 1991년 선동열(해태 타이거즈), 1996년 주영광(롯데 자이언츠), 2012년 류현진(한화 이글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미란다는 정규리그에서 한 경기에 더 등판할 수도 있어서, 삼진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뉴스



‘EPL 4호골’ 황희찬, 리즈전 ‘킹 오브 더 매치’ 선정

울버햄튼은 1-1 무승부...감독 “함께해 기뻐” 칭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호골을 터트린 '황소' 황희찬(25)이 경기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황희찬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리즈의 엘렌드 로드에서 열린 리즈와의 2021~2022시즌 EPL 9라운드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었다. 시즌 4호골

이다. EPL 사무국은 경기 후 황희찬을 이 경기의 '킹 오브 더 매치(King of the match)'로 선정했다. 이번 시즌 3번째다.

1만411명의 팬이 참여한 투표에서 황희찬은 절반 이상인 50.3%의 지지를 받았다.

황희찬은 전반 10분 라울 히메네스의 슈팅이 수비수에게 맞고 나오자 황희찬이 재차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리그 4호골로 황희찬은 손흥민(토트넘) 등과 함께 EPL 득점 랭킹 공동 5위에 자리했다.

브루노 라즈 울버햄튼 감독은 "매우 잘하고 있다. 황희찬을 데려올 때부터 우리는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3-4년 동안 그를 좇아다니 이유"라며 "황희찬과 함께해 기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 리즈의 로드리고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하며 1-1로 비겼다.

현지 매체들도 황희찬에게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줬다.

영국 BBC는 평점 7.07점을 부여했고, 스카이스포츠는 6점을 매겼다. 유럽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팀 내 최고점인 평점 7.2점을 줬다.

피겨 유영, 그랑프리 쇼트프로그램 5위 첫 점프인 트리플 악셀 실수...김예림 6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영(17·수리고)이 시즌 첫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트리플 악셀 실수로 아쉬움을 남겼다.

유영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1~2022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9.02점, 예술점수(PCS) 32.71점에 감점 1점으로 총점 70.73점을 기록했다.

쇼트프로그램 5위로, 자신의 쇼트 최고점(78.22)에는 부족했다.

쇼트프로그램 곡인 드라마 레프트 오버의 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유영은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넘어져 수행점수(GOE) 4점이 감점됐다.

다행히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안정적으로 소화한 데 이어 플라잉 카멜 스피, 레이백 스피에서 레벨4를 받았다.

또 트리플 플립을 성공한 데 이어 스텝 시퀀스(레벨4),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레벨3)으로 연기를 마쳤다.

함께 참가한 여자 싱글 김예림(18·수리고)은 총점 70.56점으로 6위에 자리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선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트루소바(77.69점)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다리아 우사체바(76.71점), 3위는 크세니아 시니치나(71.51점 이상 러시아)가 차지했다.

한편 유영과 김예림은 오는 25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노린다.



이재영(왼쪽)과 이다영. (사진=PAOK 유튜브)

이재영, 그리스 데뷔전서 13득점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한국을 떠나 그리스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이재영-이다영(25)이 나란히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PAOK 테살로니키는 24일(한국시간) 그리스 에보소모스 시민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그리스 여자프로배구 A리그 아이아스 에보소모우와의 원정경기에서 3-0(25-10 25-15 25-16)으로 승리했다.

이다영이 지난 21일 먼저 데뷔전을 치렀고, 이재영은 이날 첫 경기를 소화했다.

당시 이다영은 데뷔전에서 경기 MVP에 선정된 바 있다.

이재영은 이날 서브에이스 1개를 포함해 13점을 올려 승리를 견인했다.

이 경기에서도 이다영은 세트루 출전해 이재영과 호흡을 맞췄다. 경기를 마친 이재영은 구단 공식채널을 통해 경기 소감을 전했다.

이재영은 "손발을 맞추기에는 기간이 짧았는데 옆에서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 혼자 잘한 게 아니고, 코칭스태프나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다영이 지난 21일 먼저 데뷔전을 치렀고, 이재영은 이날 첫 경기를 소화했다.

당시 이다영은 데뷔전에서 경기 MVP에 선정된 바 있다.

이재영은 이날 서브에이스 1개를 포함해 13점을 올려 승리를 견인했다.

홍명보 감독 “ACL 탈락 충격있지만, 울산답게 이겨낼 것”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이 탈락의 충격을 딛고 선수들이 리그 우승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은 24일 오후 3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이자 24라운드 순연경기를 치른다.

홍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ACL 탈락의) 충격이 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또 다른 게임이 앞에 있고, 결과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얘기했고, 그동안 해온 것처럼 울산답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두 울산은 32경기까지 18승10무4패(승점 64)로 2위 전북 현대(승점 63)에 승점 1점 앞서 있다.

성남전을 이기면 전북의 경기결과와 상관없이 1위로 스포트라이트에 돌입할 수 있다.

김남일 성남 감독, 물리치 재계약 “긍정 결과 기대”

홍 감독은 "이겨내야 한다. 다른 팀보다 휴식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강한 팀이 되려면 이것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전에는 윤일록이 벤치로 내려가고 김민준이 선발 기회를 잡았다.

홍 감독은 "체력 안배를 고려했다. 포항전을 120분 치렀다. 윤일록이 잘했지만, 체력적인 소모가 우려된다. 김민준은 그동안 경기 못 나갔지만, 팀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과의 ACL 4강전에서 승부차기 실축으로 고개를 숙인 수비수 불투이스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홍 감독은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명단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리그 11위로 강등권 싸움 중인 성남 김남일 감독은 울산보다 체력적인 우위에 안일함을 갖는다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제주 유나이티드전 이후 3주간 휴식을 통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며 "울산이 체력적으로 불리하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면은 강할 것이다. 울산을 이기려면 더 단절하게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물리치와 함께 홍시후를 선발로 내보낸 김 감독은 "휴식기에 치른 두 차례 연습 경기에서 홍시후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시즌 임대 영입한 물리치의 시즌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선 "구단과 긍정적인 얘기를 나눴다. 지금까지 8승을 했는데, 물리치의 결승골이 6승은 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르비아 출신의 장신 골잡이 물리치는 올 시즌 현재 리그 12골로 득점 5위에 올라 있다.

뉴스

황선우, 경영월드컵 자유형 200m 1위...국제대회 첫 금

수영 대표팀, 경영월드컵 3차 '금2·은3·동9개' 마무리

한국 수영의 미래로 불리는 황선우(18·서울체고)가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자유형 2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제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우는 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아쿠아티센터에서 치러진 FINA 경영월드컵 2021 3차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부41초17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쇼트코스 대회에 처음 출전한 황선우는 첫 국제대회 금메달이다.

이번 경영월드컵은 롱코스(50m)가 아닌 쇼트코스(25m) 길이의 풀에서 치러졌다.

150m 지점까지 2위였던 황선우는 마지막 50m에서 역전하며 남자 프리카공화국의 매투 세이즈(1분41초33)를 앞질렀다. 3위는 다나스 램시스(리투아니아·1분42초26)가 차지했다.

경기를 마친 황선우는 "금메달은 너무 만족하는 결과"라며 "앞으로 쇼트코스 기록도 더 줄여가고 싶다.

150m까지 매투 선수와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승부를 보자는 생각으로 마지막 25m에서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레이스를 운영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자유형 200m에 같이 나선 대표팀 동료 이호준(대구광역시청)은 1분44초91로 6위, 문승우(전주시청)은 1분50초56으로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경영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날 김우민(강원도청)은 주종목이 아닌 남자 개인혼영 400m에서 4분15초99로 일본의 다이아 세토(4분01초97)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땀다.

여자 자유형 800m에 나란히 나선 한다경(전라북도체육회)은 8분24초06으로, 유지원(경북도청)은 8분24초80으로 둘 다 A기준기록을 통과하며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 16년 차인 백수연(광주광역시체육회)은 여자 평영 50m에



황선우(가운데)가 금메달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대한수영협회)

서 31초01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백수연은 앞서 평영 100m, 200m에서 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하은(안양시청)은 31초69를 기록, 6위로 경기를 마쳤다.

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정소는(울산광역시청)은 여자 접영100m에서 57초85로 4위를 기록하며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한편 수영대표팀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12월 중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제15회 FINA 세계쇼트코스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